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연구

공 은 숙 · 최 미 숙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요약) 본 연구는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노인환자를 간호하는 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이며, 연구대상자는 간호학부 3학년 여학생 11명(연령범위 21-23세)이었다. 그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관찰은 2012년 5월 하순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은 실습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루어졌다. 임상실습의 참여 관찰 및 심층면접 내용은 Colaizzi(1978)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치매노인환자를 접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학생들은 초기에 환자가 측은하게 느껴지고, 거리를 두고 싶었으며, 치매환자의 간호에 한계를 느끼고, 간호사의 꿈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등 부정적인 느낌이 컸지만, 실습 후반에는 환자에게 마음을 열고 대하거나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등 환자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나 관점이 변하게 되었음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본고의 말미에는 치매환자 간호 실습의 부정적 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맥락에서, 치매환자 임상간호실습의 시기 및 실습생들의 지적 및 정서적 성숙성에 관하여 논의했다.

[Key words: 임상간호실습, 치매노인환자, 현상학 연구]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60-7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3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공은숙 교수 앞으로 하시길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eun@jesus.ac.kr이다.

서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 이미 전체인구의 12.2%를 차지했다. 노인인구의 비율은 2030년에는 24.3% 그리고 2050년에는 37.4%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3). 또한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 비율도 2013년에 0.9%에서 2030년에는 2.5%, 2050년에는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통계청, 2013), 이로 인하여 치매 및 만성퇴행성 질환을 겪는 노인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치매노인은 2012년에 약 54만 명에서 2030년 약 127만 명, 그리고 2050년 약 270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며(보건복지부, 2013), 급증하는 치매노인인구의 간호 및 관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치매환자는 치매질환의 특성상 서서히 인지, 정서, 및 행동 기능에 장애가 심해지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장기간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지속적인 간호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 치매요양원이나 노인병원 등의 시설에 입원한 치매노인환자는 치매 외에도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다양한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호에 대한 요구수준이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요양원 거주자의 약 37-48% 정도가 중등도 및 심한 인지손상을 지닌 중증치매를 앓고 있어(Closs, Cash, Barr, & Briggs, 2005)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아주 높은 실정이다.

치매노인환자의 간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가 증가하면서 보건 의료현장에서 직접적인 간호를 수행하거나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간호대학에서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간호사를 배출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간호사의 노인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간호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며(Courtney, Tong, & Walsh, 2000), 노인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는 노인환자를 기피하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McKinlay & Cowan, 2003)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간호대학생들이 생소한 환경에서 낯선 환자들을 대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반응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나 간호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미래의 간호사 역할에 대한 회의를 갖기도 한다(박경숙·황운영·최은희, 2003).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일반노인 환자보다 치매노인환자 간호에 더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편이다(김정희, 2000). 그러나 치매노인환자를 직접 대하고 임상 간호 실습 전후를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임상 실습 후 간호대학생들의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학습이 중요한 과정임을 시사하고 있다(강희영 등, 2013; 김정희, 2007, 2008).

그러나 양적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등의 임상경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정서 및 행동기능까지 황폐화되어가는 치매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 경험을 처음 해보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응하는지 등의 의미를 파악해보는 방법은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에 의존해야 한다. 질적 연구는 소수의 참여자들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여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의미체계, 느낌 등을 파악하는 특성이 있다. 곧 질적 연구는 양적인 연구로 밝혀내기 어려운 결과들을 찾아낼 수 있고, 질적인 면에서 각 대상자들의 간호요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간호방법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현상학적 접근이라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환자 간호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환자 간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교육에서 치매노인환자의 간호방법 개발에 필수적인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노인환자를 간호할 때 경험하는 현상과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기술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Colaizzi(1978)의 방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환자 간호경험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였다.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J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간호학부에 다니는 3학년 여학생으로 치매전문요양원에서 2주 동안 임상실습을 통해 치매노인환자 간호를 경험했던 11명이었다. 그들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관찰과 면담 및 모든 연구과정을 수락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간호경험에 관한 진술을 충분히 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연령 범위는 21-23세였고, 모두 치매노인환자를 간호한 경험은 처음이었다.

연구자 준비

두 명의 연구자 중 한 사람은 1990년대부터 질적 연구를 수행해오면서 다수의 질적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사람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박사학위논문을 마쳤으며, 질적 연구 관련 워크숍 참여 활동을 통해 질적 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학습해오고 있다.

자료 수집 및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들은 사전에 치매요양원 원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참여관찰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참여관찰은 연구자 2인이 2012년 5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수시로 직접 실습현장에 나가 수행하였다. 두 연구자는 참여관찰 전에 관찰할 내용 및 그 기록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참여관찰 도중이나 이후에 발생하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논의를 통해 참여관찰 기록의 객관성을 높였다. 학생의 언행을 관찰한 내용은 컴퓨터에 다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연구대상자와의 면담은 실습 종료 후 2012년 6월 일대일 심층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 1인당 면담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장소는 학교 내 면담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학습실이었으며, 연구대상자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 공간이었다. 면담과정에서 차와 다과를 제공하여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했으며, 면담 후에는 참여의 대가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면담은 “치매노인환자 간호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비구조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으며,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치매노인을 간호하는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했으며, 면담 중이라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녹음 내용의 삭제요청과 함께 면담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면담 후에는 녹음한 면담내용을 컴퓨터에 필사하였으며, 저장된 내용을 출력한 1차 자료를 분석한 후 분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료를 포화시켰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학생의 진술을 통해 치매노인 간호경험의 현상을 파악하고 의미를 탐색하고자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주체의 관점을 서술한 것 중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을 묶어 추상화시키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어서 간호학생의 치매노인 간호 임상실습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경험 속에 내재된 의미구조의

확인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일곱 단계를 거쳤다.

1) 첫 단계에서는 자료가 정확히 필사되었는지를 확인했으며, 아울러 연구대상자가 표현했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습 경험자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은 후에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2) 2단계에서는 밑줄을 그었던 의미 있는 진술들 가운데 치매노인 임상실습 경험이라는 현상과 직접 관련된 구절이나 문장으로부터 총 323개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추출하였다.

3) 3단계에서는 연구대상자가 표현했던 의미 있는 진술을 반성하면서 비슷한 속성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총 130개의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였다.

4) 4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도출된 의미를 끌어낸 후 여러 맥락에서 숨겨진 의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5) 5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를 39개의 주제와 16개의 주제군으로 조직한 후 진술된 주제군이 원 자료와 주제군 사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면서 일치 또는 불일치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6) 6단계에서는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기술하였으며, 이때 모든 자료의 분석결과를 서술하여 통합하였다.

7)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합된 공통요소를 종합하여 본질적인 구조를 진술하였으며, 이를 연구대상자인 간호학생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타당도를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본질적인 주제와 연구대상자가 진술한 경험과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엄밀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의 엄밀성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 그리고 적용성 측면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기록과 분석이 자신이 진술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시 연구자는 전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반적인 연구과정과 연구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연구자들의 사전 편견을 통제하고 중립을 유지하였고, 간호경험을 공유했다라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에게 연구결과를 보게 하여 의미 있는 진술이라는 공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치매노인환자 간호경험에서 도출된 7개의 범주와 16개의 주제군, 그리고 39의 주제는 <표 1>과 같다.

범주 1: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음

연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범주는 “특별하게 다름을 깨닫게 됨”과 “친해질 수 없음”이라는 2개의 주제군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영된 주제별 의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주제군 1 (특별하게 다름을 깨닫게 됨). 주제군 1의 의미는 ‘상상이 현실이 되어 힘이 듭,’ ‘특별함을 깨닫게 됨,’ ‘외국인 대하기보다 더 어려움’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다른 병동의 임상실습을 통해 이미 노인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었고, 이론수업과 미디어를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노인환자와는 다른 특별한 행동들을 대하면서 자신들이 실습 전에 부정적으로 상상했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재현되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치매노인환자들이 다른 환자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음을 느끼는 경험을 하였고, 때로는 너무 심각하게 달라서 외국인을 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였다. 그 경험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필수적인 간호에 대해 거부하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호를 거부했을 때 타당하게 말씀을 드려도 그런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설명을 해도 안 되고, 실습 전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어려울 것으로 상상했는데, 정말 그런 분들한테 간호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참여자 1)

“그분들이 치매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 다른 노인들과는 많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참여자 2)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말이 통하지 않아 제가 치매환자를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참여자 4)

“처음에 치매노인의 행동을 보고, 우리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외국인 보다 대하기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5)

주제군 2 (친해질 수 없음). 주제군 2의 의미는 ‘두렵고 무서움’과 ‘다가가기 꺼려짐’으로 구성되었다. 치매노인환자를 처음으로 접한 연구대상자들은 불안감과 긴장감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환자를 피하고 싶고 옆에 같이 있다는 것이 괴로워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경험을 하였다. 그 경험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았다.

“처음에 치매노인이 있는 방에 갔을 때는 뭐지? 막상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리둥절했어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고 막 이런 저런 생각이 나고, 어르신이 미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워서 진짜!” (참여자 6)

“저는 이번에 치매노인을 처음 겪어봤는데 처음에는 겁도 나고 두려움과 거리감도 있었어요. 자신도 없었고요.” (참여자 7)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고집도 강하시잖아요. 그것을 다루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맘을 열기가 참 힘들었어요.” (참여자 8)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 화도 많이 내시고 때리시는 분도 있어서 많이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저 때리신 분 옆에는 가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참여자 9)

“처음엔 무서웠어요. 다른 노인들과 생각했던 것과는 대개 많이 다르니까 그렇기도 하고 소리 지르시는 분, 욕하시는 분도 있고 때리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무서웠어요!” (참여자 10)

범주 2: 막연한 염려가 자리함

연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두 번째 범주는 “미래의 모습일 것 같은 불안감”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영된 주제별 의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주제군 1 (미래의 모습일 것 같은 불안함). 주제군 1의 의미는 “내 모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표 1>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 임상실습 경험

범주	주제군	주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음	특별하게 다름을 깨닫게 됨	상상이 현실이 되어 힘이 듦
		특별함을 깨닫게 됨
	친해질 수 없음	외국인 대하기보다 더 어려움
		두렵고 무서움
막연한 염려가 자리함	미래의 모습일 것 같은 불안함	다가가기 꺼려짐
		내 모습일 수 있음을 자각함
한계에 부딪힘	막막하고 어려움	가족에 대한 염려가 생김
		주춤거려짐
	모욕감을 느낌	찢찢매게 됨
		붕변을 당함
	막힌 소통이 진심을 가로챌	무시당하는 듯함
		말과 마음이 통하지 않음
진정한 마음이 생기지 않음	위선적으로 행함	통하지 않는 진심이 서운함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함
	감정으로 대하게 됨	겉으로만 받아들임
		냉정하게 대함
		귀찮고 부담이 됨
		더럽다는 느낌이 듦
간호에 확신이 들지 않음	자신이 없음	상황에 대처할 줄 모름
		요구를 채워줄 수 없어 답답함
	보조와 지지적 간호를 수행함	신체적 보조간호가 어려움
		보조적인 간호수행이 못마땅함
측은해 보임	과거 속에 갇힌듯함	살아온 과거를 말하는 듯함
		증상은 삶의 표현임
	안타까움	살아온 과거를 말하는 듯함
		주의를 끌고 싶어 함
		애잔함
		애잔함
변화하는 자신을 보게 됨	마음을 열고 다가감	먼저 다가가게 됨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됨
		마음에서 진심이 우러나옴
	인식과 관점이 변화됨	거부감과 편견이 사라짐
		구별된 행동을 특성으로 받아들임
		처지가 이해됨
		정상인같이 대하는 자신에게 놀람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됨	대상자 수준에 맞추어 응대함
		언어와 대화방법을 터득함
	사랑과 특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	질문과 대답을 재미있게 해줌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필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간호임

습일 수 있음을 자각함”과 “가족에 대한 염려가 생김”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이상행동과 폭언을 일삼는 치매노인들을 보면서 미래에 자신에게도 이런 치매가 오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느꼈으며, 혹시 가족 중에 누구라도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염려가 자리하게 됨을 경험하였다.

“처음에 치매노인이 있는 방에 갔을 때는 뭐지? 막상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리둥절했어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고 막 이런 저런 생각이 나고, 어르신이 미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워서 진짜!” (참여자 6)

“가끔씩은 나도 치매노인처럼 치매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어르신 중에 저희 친할머니랑 되게 닮으신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진짜 할머니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여기 계신다면 엄청 절망적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가족들이 대개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참여자 11)

“나는 내 부모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잘 보살펴 줄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내팽겨 둘까... 휴.. (한숨).” (참여자 4)

“제가 치매 환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 그분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대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5)

범주 3: 한계에 부딪힘

연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세 번째 범주는 “막막하고 어려움,” “모욕감을 느낌,” 그리고 “막힌 소통이 진심을 가로챌”의 3개 주제군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영된 주제별 의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주제군 1 (막막하고 어려움). 주제군 1의 의미는 “주춤거려짐”과 “떨떨매게 됨”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치매노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당황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험을 하였다.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지 ‘빨리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살짝 만지는 것만도 혹시 신체적인 무리가 가서 ‘아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주춤주춤 다가갔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활력징후를 재려고 어르신께 다가가니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주춤하다 다시 재려고 하니 또 막 고함을 치세요. 어쩔 줄 모르고 잠시 다른 곳으로 갔다가 옆에 계신 다른 어르신의 혈압을 재려고 하니까 또 고함을 치세요. 순간 찢절매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8)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참 많이 당황했어요. 식사보조를 하는데 어르신이 너무 천천히 드세요. 식판 다 나가고 주변 정리가 끝났는데 그분만 혼자 드시고 계셔서 제가 조금 속도를 빨리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례가 걸리신 거예요. 갑자기 입술이 파래져서 몹시 당황했고, 어찌 할 줄 몰랐어요. 다행히 음식을 삼키고 숨을 쉬어서 괜찮았지만 제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막막했어요.” (참여자 11)

주제군 2 (모욕감을 느낌). 주제군 2의 의미는 “무시당하는 듯함”과 “봉변을 당함”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다른 임상실습에서 여러 환자들을 경험하였으므로 힘은 들어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치매환자로부터 뺨을 맞거나 심한 욕설을 들을 때 매우 당황되고 난감했으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어 속상하고, 슬펐고, 자신이 무시를 당한 것 같은 모멸감을 경험하였다.

“언어적으로 폭력적이신 분을 담당했어요. 그분이 감정기복도 많이 심하신 분이여가지고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하면서 피했는데.. 계속 욕을 하시고. 언어적으로 왜 그런 말 하시는지 앞뒤가 안 맞게 하시거든요 갑자기 이야기기하고 계시다가 화를 내시고 딱 봉변당한 느낌이랄까요? 제가 말실수라도 했나? 생각하게 되고요.” (참여자 2)

“제가 옆에서 말해도 관심도 없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힐끗거림), 어르신에게 이거 뭐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고, 그냥 멀리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 3).

“소리 지르시는 분 때문에 깜짝 놀랐죠. 왜 저러시지 저분?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욕을 한마디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눈물도 나고 속이 상하고요.” (참여자 6).

“딱 미친년들아 하시는 거예요. 아 심했어요. 그 욕이 엄청 심한 말이었어요. 또 항상 아침에 가면 냄새가 심해요. 그런데 그 냄새가 어르신들 대소변 냄새잖아요. 아침에 가보면 벽에 똥 바르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똥 만지작거리고. 또 휠체어타고 산책을 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침을 막 함부로 뱉고 하셔서 내 손등에도 다 튀는 거예요. 봉변을 당하는 느낌과 모멸을 느끼는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참여자 7).

“저를 때리지도 못하시고 되게 바퀴벌레 보듯이 하시는 거예요. 말을

좀 험하게 하세요. 그때 선생님이 기저귀를 갈고 환자분을 의자에 앉혀 났어요. 제가 옆에 가서 도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상한 듯이 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왜 왔냐는 듯이 쳐다보고.” (참여자 9).

주제군 3 (막힌 소통이 진심을 가로챈). 주제군 3의 의미는 “말과 마음이 통하지 않음”과 “통하지 않는 진심이 서운함”으로 구성되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연구대상자들은 말로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그러나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고 아무리 애써도 라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진심 어린 간호를 제공하고 잘 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는 환자를 보면서 공허감과 서운함을 경험하였다.

“라포 형성이 힘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막막하고. 음.. 그냥 일반 어르신들을 만날 때는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거나 그 정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뭘 얼마나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참여자 3).

“우선 대화가 안 통하니까 저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그래서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척 어려웠고, 진심으로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맘을 열기가 참 힘들었어요.” (참여자 4).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 치매 때문에 당연한 건데도 서운했어요. 처음에는 아 내가 이렇게 정을 주는데도 나를 기억 못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서운함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하나도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침인사를 하면 ‘아 새로 실습 왔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한없이 사랑을 줘도 기억을 못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에 공허하고 속상했구요. 치매노인 분들은 가족들이 면회를 와도 잊어버리세요. 일부러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보는 사람은 많이 힘든 것을 경험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요.” (참여자 5)

“말이 안 통하니까. 치매노인의 마음을 몰라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나가야 된다고 문 빨리 열어달라고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어르신은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세요. 오리엔테이션을 반복해서 시켜도 안돼요. 나이가 65세인 환자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80년 동안 살았고, 병원에서 50년 동안 지내셨다고 말해요. 많이 안타깝고 힘들죠.” (참여자 6).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웠어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고 갑자기 말씀하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시다가 화를 내시고 고집이 되게 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알려준 것을 엉뚱하게 말해 다시 알려드리고 했는데 다음날 물어보면 또 말을 못하시니 답답하고 이렇게 해봤자 나아질게 없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8).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참 앞전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은 경험은 처음이에요.” (참여자 9).

범주 4: 진정한 마음이 생기지 않음

연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네 번째 범주는 “위선적으로 행함”과 “감정으로 대하게 됨”의 2개 주제군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영된 주제별 의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주제군 1 (위선으로 행함). 주제군 1의 의미는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함’과 ‘겉으로만 받아들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치매노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때로는 위선적으로 위로하기도 했고, 거짓말로 그들을 안심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화과정에서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기 때문에 서서히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였고, 그래도 경청하는 척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는 경험도 하였다.

“하루 종일 애기 어디 갔냐고 우는 소리를 하는 치매노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찾는 시늉도 하고 따라다녔는데, 아이고... 지쳤어요. 그래서 애기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찾으시면 똑같은 말로 ‘잘 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거짓말로 안심시켜드리면서 성공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거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참여자 2)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정말 대충 들어야 해요. 그분들은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그냥 잘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해요. ‘아 그러세요!’ 하면 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시니까...” (참여자 5)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그냥 나중에는 좋겠다고 부럽다고 하면서 수궁하거나 맛장구쳐주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휴우, 안심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8)

주제군 2 (감정으로 대하게 됨). 주제군 2의 의미는 ‘냉정하게 대함,’ ‘귀찮고 부담이 됨,’ 그리고 ‘더럽다는 느낌이 들’ 으로 구성되었다.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에게 친절히 대하는 태도를 실천해온 연구대상자들은 치매노인환자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해주고자 많은 노력을 시도해 본다. 그러나 치매노인이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할 때 위험을 감수하면서 냉정하게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고 부담되는 환자로 무시하는 경험을 하였다.

“음, 어쩌면 감정으로 대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르신이라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데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래서 들어주기 싫고.. 어르신들이 부를 때는 일부러 냉정하게 대하거나 다른 일을 하기도 했는데..” (참여자 1)

“지능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 잘 안 듣기도 해요. 그래서 얼굴표정을 냉정하게 하고, 목소리도 굵게 크게 내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상태로 혈압을 재려고 하니깐 겨우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드럽게만 대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참여자 4)

“하기 싫고, 부담감도 컸고, 바쁠 때는 귀찮기도 하고... 또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요. 로션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려고 피부를 만지는데, 처음엔 되게 찝찝했어요. 선생님들은 장갑을 끼고 바르시더라고요. 노인의 머리 빗질도 해드리고 했는데, 각질도 많으시고 지저분해요. 맨손으로 누구한테 발라준 적은 처음이었어요.” (참여자 7)

“처음에 더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할 때 흘리고... 조금 흘리는 게 아니라 많아요.. 비위생적인 행동이 너무 많으니까 다가가기 힘들었지요.” (참여자 8)

범주 5: 간호에 확신이 들지 않음

연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다섯 번째 범주는 “자신이 없음” 과 “보조와 지시적 간호를 수행함” 의 2개 주제군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영된 주제별 의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주제군 1 (자신이 없음). 주제군 1의 의미는 ‘상황에 대처할 줄 모름’ 과 ‘요구를 채워줄 수 없어 답답함’ 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이론적 지식에 근거하여 간호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치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매노인이 어떤 간호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사정을 할 수 없어 몹시 답답함을 경험하였다. 또한 치매노인에게 잘 해드리고 싶었지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서툴러서 간호에 대한 확신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였다.

“어르신 방에 갔을 때 누워서 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하면서 그냥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잠잠해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고함을 지르시기에 가서 어제와 같이 해 드렸는데 더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참여자 1)

“몸에 구축이 있으신 분이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실수 할까봐 많이 힘들었어요. 만약에 옷을 갈아입히는 거면 팔 부분에 구축이 있으니까 옷을 넣어야 되는데, 골절이라도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힘들었어요. 일반 노인들보다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아프다고 안하고 여러 날 지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사고가 일어날까 걱정되고.. 골절될까봐.” (참여자 2)

“어르신들이 이미 밥 먹은 것도 잊고 잠자는 시간도 기억 못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도 못하고 그러면 제가 어르신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어르신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어르신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을 충족시켜 줄 수 없잖아요. 간호를 해주고 싶는데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참여자 5)

“말씀하시기 불편한 분도 있고 아니면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요구를 모르니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하다보면 소리치시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거나, 식사서빙하거나, 그러면 어떤 간호를 해줘야 하는지... 요구가 뭔지를 알아야 간호를 하는데 그게 알 수가 없으니까.” (참여자 10)

주제군 2 (보조와 지시적 간호를 수행함). 주제군 2의 의미는 ‘신체적 보조간호가 어려움’과 ‘보조적인 간호수행이 못마땅함’으로 구성되었다. 치매노인과 관계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상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간호를 제공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할 수 있는 간호란 지시받은 신체적 보조간호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험이었다. 또한 독자적으로 간호를 수행하지 못해 아쉬움과 못마땅함을 경험하였다.

“주로 했던 간호경험은 식사보조와 목욕보조를 하는 것이었어요. 대부

분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을 많이 도와드렸고...식사보조, 침상 만들기, 옷 갈아입는 것 도와드리고, 요구하시는 것을 가져다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보조하는 것 등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를 받아서 해요. 내가 무얼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았어요.” (참여자 1)

“매일 경험했던 것은 식사 보조하고 양치질도 도와드리고 가끔 손발톱 정리하고,,, 이동하실 때, 식사나 목욕할 때 옆에서 같이 보조해줘요. 그런데 저는 요양보호사를 그저 돕는 것이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막상 혼자서 간호하는 것은 어려워요.” (참여자 2)

“식사 보조할 때 힘들었어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팔이 안 되니까 구축돼 있어서 또 몸을 못가누시는 분들이 몸이 앞으로 쏠리고, 또 머리를 움직이고, 그래서 거의 요양보호사 보조해주는 간호를 했어요. 환자 다루기가 몹시 힘들었어요.” (참여자 9)

범주 6: 측은해 보임

연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여섯 번째 범주는 “과거 속에 갇힌 듯함”과 “안타까움”의 2개 주제군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영된 주제별 의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주제군 1 (과거 속에 갇힌 듯함). 주제군 1의 구성은 ‘살아온 과거를 말하는듯함’과 ‘증상은 삶의 표현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치매노인 환자의 상태나 간호 상황에 따라 몹시 힘든 경험을 하였으나, 치매노인환자의 이상행동은 그들이 살아온 과거의 삶이 반영된 것이며, 그들이 기억감퇴 및 상실로 인해 예전의 과거 속에서 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였다.

“치매노인들이 어떤 증상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궁금하고, 그런데 과거의 삶을 토대로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신이 망가지셨는데도 그런 과거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비추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 2)

“치매노인이라도 해서 다 이상한 증상을 가진 게 아니고 자기 성격이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 같은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 6)

“이상행동이나 욕 등은 젊었을 때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하셨을까 궁금한 것이 연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결되는 것 같았어요. 항상 안경 쓰고 화투치시고 눈높이 수학문제 풀고 계시는 분 있었는데, 그분이 선생님이었더라고요. 치매 걸려도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기억은 나타나고 어떤 패턴으로 사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 9)

“행동을 볼 때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보니까 젊었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게 그분들의 행동에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땅에서 계속 무엇을 집어 치마에 넣는 거예요. 젊었을 때 밭일을 아주 많이 했대요. 관찰해 보니 할머니의 행동과 과거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참여자 11)

주제군 2 (안타까움). 주제군 2의 의미는 ‘주의를 끌고 싶어 함’과 ‘애잔함’으로 구성되었다. 치매노인이 가족을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가족을 그리워하고, 이상행동과 폭언 등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행동이었음을 깨닫는 경험을 하였다.

“그분들이 욕을 하시면서 본인의 신세한탄이나 자식이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오래 있어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칠게 했던 행동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돌봄을 받고 싶어서 그러신 것도 같아요.” (참여자 1)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어르신이 여기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내일 추석이라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내일 추석 아니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일 아들이 데리러 와서 너무 좋다고. 우리 아들이 온다고 했다고. 실제로 아들이 안 온지가 아주 오래 됐는데요. 가족이 몹시 그리운 것 같아 정말 안타까웠어요.” (참여자 8)

“그 할머니는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저를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고 다른 할머니 침대로 가서서 발을 꼬집고 조용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의 정상 같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 어르신은 치매 증상이래요. 관심 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참여자 9)

“관찰해 보니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것들이 관심 받고 싶어 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르신은 이상한 행동들이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참여자 10)

“어떤 할머니는 계속 백번도 넘게 아들이 언제 오냐고 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저러오는 걸 느꼈어요. 가고 싶다는 말과 아들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참여자 11)

범주 7: 변화하는 자신을 보게 됨

연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곱 번째 범주는 “마음을 열고 다가감,” “인식과 관점이 변화됨,”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됨,” 그리고 “사랑과 특별한 지식이 요구됨”의 4개 주제군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영된 주제별 의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주제군 1 (마음을 열고 다가감). 주제군 1의 의미는 ‘먼저 다가가게 됨,’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됨,’ 그리고 ‘마음에서 진심이 우러나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처음에는 치매노인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심을 전달할 수 없는 경험을 하였지만,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치매노인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행동이 질병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였다. 치매노인 옆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말을 들어주고, 편안하게 먼저 접근하고, 치매노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이해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신을 경험하였다.

“제가 먼저 했죠. 환자들은 절대 먼저 접근 안 하세요. 그냥 어르신 한 명 한명의 사연을 알아내고 그걸 동조해주며 같이 나누는 행복한 경험을 했어요. 치매노인 중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쁜 생각을 하시는 어르신이 계신 거예요. 또 큰 아픔 때문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살고 계신 어르신도 계시고요. 그리고 욕하고 이상한 행동만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는데 다양한 분들을 겪으면서 어르신들의 말을 경청하여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말투에서도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투적이지 않게 진심이 느껴질 수 있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도 그거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의 없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인사할 땐 한분씩 잡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지나가는데 그때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치매노인들 돌볼 때도 손을 잡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분들은 외로움이 많아서.” (참여자 3)

“제 진심이 전해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했어요. 매일 욕하고 식판이나 다른 물건을 집어 던지시던 분이 계셨는데 계속 말을 걸고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하니까 어느 날부터는 욕도 안하시고 물건도 던지지 않으셨어요.” (참여자 8)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다가갔을 때는 많이 거부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어떤 분은 오지 말라고 하시고 때리려고 하고 손도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먼저 다가가고 하니까 친근하게 대하고, 점점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참여자 10)

주제군 2 (인식과 관점이 변화됨). 주제군 2의 의미는 ‘거부감과 편견이 사라짐,’ ‘구별된 행동을 특성으로 받아들임,’ ‘처지가 이해됨,’ 그리고 ‘정상인처럼 대하는 자신에게 놀람’ 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치매노인에게 먼저 다가가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점차 치매노인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내면을 경험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은 치매노인환자의 공격적이거나 이상한 행동 및 폭언을 수용하게 되고, 치매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치매노인을 일반노인처럼 대하는 자신에게 놀라는 경험을 하였다.

“정말 기억을 못하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보통 노인이라면 짜증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치매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치매노인은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치매노인의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오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참여자 3)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치매노인에 대한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상행동과 직접 부딪혀서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큰 돌봄이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한 점은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반복적인 생각과 이상행동은 불만을 해소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 치매노인이 처음에는 저를 꼬집기도 하고 힘들게도 했지만 고의가 아니었구나! 라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참여자 4)

“치매를 병으로 인식하고 뇌의 병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한테 놀랐어요. 이렇게 내가 치매노인과 말을 할 수 있고, 간호를 할 수 있고, 진심으로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놀랐고요.” (참여자 6)

“제 신념에 영향을 줬어요. 욕쟁이 할머니 같은 경우도 그냥 욕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받은 상처가 되게 크셔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하시고 욕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구나!’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선불리 환자에 대해 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욕하는 자체로 그 할머니를 받아들었어요.”
(참여자 7)

“한 번 더 다가가고 하면 어떤 분은 제가 갈 때마다 움찔움찔 하시고 항상 가면 빨간 양말이랑 수건 가져다달라고, 노란 조끼는 어디다 놓았냐고 하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왔어? 하면서 예뻐해 주시시거나 진전은 없는데 그래도 거부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무서웠고 편견이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9)

주제군 3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됨). 주제군 3의 의미는 ‘대상자 수준에 맞추어 응대함,’ ‘언어와 대화방법을 터득함,’ 그리고 ‘질문과 대답을 재미있게 해줌’ 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법을 조금씩 터득해가면서 치매노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음을 경험하였고, 치매노인들과 이야기할 때 유머를 곁들이면서 즐기는 경험을 하였고, 자신이 치매노인의 눈높이에 맞추어가는 경험을 하였다.

“같이 옆에 있으면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생각도 나누면서, 옆에서 그렇게 같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그런 거를 통해 그들과 한 걸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럼 그럴 때 같이 하는 것. 손잡고 같이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실내 산책하는 등 한 걸 쉬웠어요.” (참여자 2)

“그 전에는 라포 형성이 힘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막막하고 그랬는데, 차츰 진심으로 대하다보니 조금은 수월해지고 라포를 더 많이 형성하게 되고, 어떻게 말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 3)

“도둑년이라고 하셨던 그분하고는 라포 형성이 힘들었는데 계속 대하고, 인사하는 방법을 바꾸고 하니깐 팬썬아졌어요. 대화 기술 같은 것도 그렇고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거니까 항상 제가 무작정 돌보고 간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는 게 더 잘 간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서 제 간호방식도 달라지는 거고 아니까!” (참여자 7)

“어떤 분은 막 소리 지르시고,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분이 소리 지르시고,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웃으시고, 손을 잡고 안 놓으시려고 하시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시고 저는 그런 거는 대개 받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장단에 맞춰드렸고, 그리고 나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쉬어졌어요.” (참여자 8)

“할머니가 자기 견대 가지고 간다고 일하는 직원을 이빨로 콧물었어.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는데 저는 옆에 있어드려야겠다는 생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각이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진정이 되시는 방법은 할머니와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할머니한테 이 자리 떠나자고 할머니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말씀을 들어 드리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이야기를 들어주니 할머니는 계속 얘기하고 진정이 되요.” (참여자 9)

주제군 4 (사랑과 특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 주제군 4의 의미는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 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간호임’ 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다른 어느 임상실습에서보다 치매노인환자를 간호하면서 자신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경험을 하였다. 임상실습 시작 시에 연구대상자들은 치매노인들을 간호하기가 몹시 힘들었지만 그들 곁에서 간호하는 경험을 계속하다 보니 치매노인환자를 간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는 경험을 하였다. 특히 임상실습을 통해 치매노인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간호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치매노인환자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직접 인식하는 경험을 하였고, 치매노인환자 간호는 졸업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경험이며, 실습 후에는 뿌듯함을 느끼는 경험을 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하면서 환자분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하는 것이 몸의 질병이 다 마음에서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치매환자 간호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정말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짜증나는 거고요. 간호를 해줄 때나 힘들 때 치매노인 한분 한분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치매 노인들이 행동하는 성향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왜 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1)

“치매노인 간호는 간호사도 되고 친구도 되고 가족도 되고 영적인 지지자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치매 노인을 정서적으로 돌보아주면 저는 그분에게 손녀딸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도도 해드리고 성경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분에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달라지니까 제가 하고 싶은 돌봄은 최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대상자가 느낄 수 있도록

록 노력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돌봄보다는 정신적이고 마음으로 하는 돌봄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치매노인도 잘 돌보는 간호사가 될 거라고 다짐했어요. 가장 돌보기 어려운 환자이니깐요. 제가 실습한 곳 중에 가장 재미있고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속적인 것이 중요해요.” (참여자 2)

“치매노인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준비하고 나갔더라면 하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실습을 통해 어린아이 시선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의료적인 간호행위보다는 인간 관계를 맺는 돌보는 간호가 더 많은 거 같아요.” (참여자 4)

“환자분들의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냥 없는 것처럼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옆에 있어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욕을 할 수도 있고 흥을 볼 수도 있고 한테, 그러면 안 되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드리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치매노인 환자는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참여자 5)

“제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때 환자분을 잘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대변을 보시고 손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나중에 발견하면서 정말 치매노인들은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치매노인 환자 간호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8)

“이 실습은 다른 실습과 달라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엔 정말 싫던 분들도 웃고 장난치고 하면서 함께 하니까 가라고도 안하시고 저희를 반기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볼도 쓰다듬어 주시고 같이 노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았어요.” (참여자 10)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처럼 그런 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없는 거잖아요 다 그런 세대를 거쳐 가는 거고. 자기가 격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힘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밥 먹여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하는 게 귀찮고 그런 일이니까. 치매노인 간호는 마음을 다하는 간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1)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치매요양원에 입소한 치매노인환자를 2주 동안 간호한 경험이 있는 11명을 대상으로 간호경험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현상학적인 질적 연구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실습의 초기단계에서 치매노인의 언행을 대하면서 놀라움과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을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막연하게 상상했던 치매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은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래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어렵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치매노인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간호대학생 자신이나 가족이 늙었을 때 나타날 미래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또 다른 염려와 두려움을 초래하는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실습 전에 지녔던 치매노인환자에 대한 인식이 임상실습 시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김정희, 2007). 요양원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도 치매노인환자를 처음 대할 때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지만, 그들은 간호대학생들보다 평소에 치매노인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인지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김춘길·이영희, 2012). 그렇다면 간호대학생들이 치매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을 할 때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우선 실습 이전에 학생들의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는 일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서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는 지도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역시 학생들에게 임상실습 이전에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치매노인환자를 상대로 한 실습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다른 질환의 환자들을 상대로 한 다양하고 폭넓은 임상경험을 거친 후에 치매노인환자간호를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진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치매노인환자를 상대하기가 어려워 주춤거리고, 환자로부터 예기치 않은 언행을 겪을 때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 정서적인 상처를 받는 경험을 했으며, 치매노인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으로 미래 간호사로서의 직무 소임의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임상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이러한 인지정서적인 경험은 간호대학생들의 위선적이

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간호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는 경험에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은 이미 이론적으로 치매의 특성과 임상적 증상 등을 개괄적으로 배웠지만, 임상실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치매를 앓는 노인환자들을 직접 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간호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충격경험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선 연구대상자들은 학부 3학년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노인 간호실습의 일부로 치매노인환자를 상대했다. 일반적으로 3학년 학생들은 주요 내·외과 질환이나 중환자를 다루는 성인간호학 이론수업을 시작한 상태이며, 다양한 인지, 정서, 행동 장애를 가진 환자를 간호하는 정신간호학 이론수업은 전혀 수강하지 않은 상태이고, 더욱이 임상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연구대상자들은 한 학기 동안 성인병 관련 질환 환자의 간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었고, 치매질환의 특성과 환자 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학습을 했고, 또 다른 일반 질환 관련 환자의 임상간호를 2주씩 2회 경험한 학생들이었지만, 정신질환 관련 환자간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임상경험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론 및 임상경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치매노인 임상간호를 곧바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보다 최소 1년 정도 일반 내과와 외과 질환 환자의 간호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쌓고, 정신과 환자 간호에 대해 이론적 학습과 임상적 경험을 진행하는 4학년 과정에서 치매노인환자의 간호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보다 더 효율적인 교과과정 편성이라고 생각된다.

또 치매노인은 인지, 정서, 행동적인 면에서 많은 기능장애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내외과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중병을 겪고 있어서 임상간호가 매우 어려운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풍부하고 숙련된 간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치매노인환자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정신간호학 실습과 성인간호학 실습 등을 두루 거친 경험이 필요하다. 아직 정신간호학 이론수업이나 실습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치매노인환자 간호를 경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치매노인 간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위험한 학습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학습경험과 전문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직 과업에 대한 훈련을 거의 마무리하고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시기인 4학년 학생들이 인지, 정서, 행동 면에서 3학년 학생보다 더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이론적으로나 임상경험이 더 풍부하고 간호전문직 역량이 더 축적된 4학년 학생은 임상에서 치매노인 간호를 처음 경험하더라도 3학년 시기의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와 충격의 정도가 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치매노인 간호를 경험하는 첫째 주에는 부정적인 인식과 정서 및 행동이 나타남을 경험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치매노인에 대한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간호를 제공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적으로 치매노인을 대하고 간호하면서 간호대학생들은 치매노인의 이상한 언행이 치매라는 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표현이고, 주위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갈구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 치매노인을 측은하게 보게 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노인에 대한 이런 시선의 변화는 간호행위의 변화를 초래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치매노인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치매노인들의 비정상적인 언행을 특성으로 이해하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나가는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은 다른 실습과 달리 치매노인환자간호는 반드시 경험을 해보아야 하는 실습이며, 테크닉 중심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본질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면서 실습 말미에는 진정한 보람을 느낀 임상실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둘째 주에 나타나는 행동 변화는 첫째 주 금요일에 실시되는 담당지도교수의 임상현장 집담회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습 전 집담회에서는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및 치매노인의 특성과 치매노인관리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공했지만, 현장 집담회에서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즉석에서 다루며 질의응답의 학습이 이루어졌다. 현장집담회라는 생생한 교육의 효과로 인해 초기의 부정적인 치매간호경험이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으로

빠르게 변화되었다면, 임상현장 집담회는 매우 중요한 학습활동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식 교수요원이 투입되어야 바람직한 학습의 결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에서 다루기 힘든 치매노인환자의 간호경험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의미를 요약하면, 간호대학생들은 첫 대면단계에서 치매노인으로 부터 정서적인 충격을 경험했으며, 둘째 단계에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절망감과 간호에 대한 확신이 저하되는 감정을 경험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차츰 치매노인을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치매노인에게 적절하고, 진정한 간호를 제공하는 노력을 시도하면서 간호하기 정말 힘들었던 치매노인환자 간호경험으로부터 보람을 느끼는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곧 간호대학생들이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경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경험으로 변화되어간 일련의 과정은 임상실습을 통한 학습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임상경험을 감소시키고 더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의 구축은 학생들에게 더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치매노인 간호경험을 3학년 때 실시하는 것과 4학년 때 실시하는 것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연구의 수행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이 치매노인의 이상행동증상 경험의 심층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현상학적 연구의 수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희영 · 채명정 · 서희숙 · 양경미 (2013). 간호학생을 위한 치매교육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 69-77.
- 김정희 (2000).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비교. *노인간호학회지*, 2 (2), 133-143.
- 김정희 (2007). 간호학사과정 3학년 학생들의 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8 (4), 601-610.
- 김정희 (2008). 간호학생들의 노인 태도에 대한 노인간호학 이론과목의 단기효과. *노인간호학회지*, 10 (2), 173-181.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

- 김춘길 · 이영희 (2012). 간호사의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경험. *성인간호학회지*, 24 (5), 454-465.
- 박경숙 · 황윤영 · 최은희 (2003).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5 (3), 373-382.
- 보건복지부 (2013). 2012 치매유병률, 치매 위험인자, 치매인식도 비교 분석조사.
- 통계청 (2013). *고령자 통계*. (2013. 9. 30. 보도자료)
- Closs, S., Cash, K., Barr, B., & Briggs, M. (2005). Cues for the identification of pain in nursing home resi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2, 3-12.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urtney, M., Tong, S., & Walsy, A. (2000).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6, 62-69.
- Lincoln, Y. S.,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CA: Sage publications.
- McKinlay, A., & Cowan, S. (2003). Student nurses' attitudes toward working with older pati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 (3), 289-309.

**Study o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Caring
Older Patients with Dementia**

Eun Suk Kong & Mi Suk Choi

College of Nursing

Jesus University

Jeonju, Korea 560-714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aring for demented elderly patient in a nursing home. The subjects were 11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nursing practicum in the nursing home. Data were collected using participant observation and open-in-depth interview. For the data analysis, the Colaizzi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tilized.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for caring demented elderly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seven categories (e.g., feeling general anxiety). There were 16 clusters of themes. As a conclusio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caring demented elderly patients in the nursing home started with negative feeling toward the patients and caring but later on they realized change of themselves. Howev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ppropriate time for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with demented elderly patients would be better at senior year than junior year.

(논문접수일: 2014년 8월 20일)

(수정논문접수일: 2014년 9월 16일)

(논문게재승인일: 2014년 9월 24일)